

언약궤기도반

교재

데이빗리 목사

홀리타임즈

목차

CONTENTS



제 1 장 언약궤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_ 5

제 2 장 언약궤의 중요성 _ 13

제 3 장 언약궤기도의 비밀 _ 35

제 4 장 언약궤기도를 위한 준비 _ 47

제 5 장 언약궤기도 방법 _ 56

제 6 장 구름 빛 불 체험 실습 _ 65

제 7 장 세가지 성물 체험 실습 _ 82





1 장

/

언약궤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제 1 장 언약궤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훈련 목적

- * 언약궤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자
- * 언약궤기도를 직접 드려보자
- * 언약궤기도를 통해 나타난 증상을 느껴보자
- * 언약궤기도를 통해 삶속에 나타난 변화를 깨닫자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언약궤기도를 드린다
- * 매일 방언기도를 드린다
- *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1. 언약궤기도는 예수님의 드리신 기도입니다.

가.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셨습니다(마 6:6).

- 골방은 기도를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골방기도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기도하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는 것을 말합니다.

나. 골방은 한적한 곳을 의미합니다.

- 골방기도는 작은 공간일수록 좋으며 한적한 곳이어도 가능합니다(자동차 안, 산책로, 자신만의 공간 등).
-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막 1:35).

[막 1:35]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다. 예수님은 이러한 골방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받으셨습니다(행 10:38).
-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가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막 9:29).
-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전

[행 10:38]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막 9:29] 이르지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혀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다른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으신 것입니다(빌 2:6-8).

[빌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 2: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 예수님의 능력은 영의기도를 통해 얻어진 강력한 능력의 도구였습니다.

- 언약궤기도는 영의기도입니다. 이는 영적인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 언약궤기도는 성막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성막기도의 지성소기도가 바로 언약궤기도입니다.
- 언약궤기도를 통해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언약궤기도(영의기도)를 드리기 위한 두 가지 기도단계

가. 육적인 기도 단계

- 육적인 기도단계는 언약궤기도를 드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 육적인 기도 단계는 주로 간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마 6:31-32, 약 4:3).
- 인간의 간구함은 육신의 정욕이 대부분입니다(요일 2:16).
- 육적인 기도는 우리 육신에 속하는 단계이며,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 육적인 기도로는 하나님의 깊은 영광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 육적인 기도는 성막 뜰에서 행해지는 기도 단계입니다.

나. 혼적인 기도 단계

- 혼적인 기도단계는 육적인 기도단계를 거친 후에 도달되는 기도단계입니다.
- 혼적인 기도 단계는 주로 감사와 찬양으로 이뤄진다(고전 14:15).
- 혼적인 기도 단계는 우리의 혼(mind)의

[마 6: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 6: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약 4:3]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고전 14:15]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영역에 해당되는 기도로써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키워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혼적인 기도 단계는 육적인 기도 단계보다 훨씬 은혜가 크고 깊지만 여전히 충분한 영광체험은 받기 어렵습니다.
- 혼적인 기도 단계는 성막의 성소에서 드려지는 기도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언약궤기도(영적인 기도단계)

- 영적인 기도 단계는 곧 영의 기도를 말하며,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말합니다 (출 25:22).
- 이렇게 지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영의 기도를 가리켜 <언약궤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 방언기도는 영의 기도로 인도하는 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시작하지만 점차적으로 영이 열려지

[출 25: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고전 14:14]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게 만듭니다(고전 14:14).

- 영의 기도는 우리의 영(spirit)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이 기도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활성화됩니다.
- 우리의 영이 활성화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롬 8:16).
-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예배를 받기 원하시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십니다(요 4:23-24).
- 언약궤기도(영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영혼육의 변화가 일어납니다(출 34:29-30, 눅 9:28-29).

[롬 8:16]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요 4: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출 34:29] 모세가 그 중 거의 두 팔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출 34:30]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를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눅 9:28] 이 말씀을 하신 후 팔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눅 9:29]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2 장

/

언약궐의 중요성

제2 장 언약궤의 중요성

훈련 목적

- * 언약궤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자
- * 언약궤기도를 직접 드러보자
- * 언약궤기도를 통해 나타난 증상을 느껴보자
- * 언약궤기도를 통해 삶속에 나타난 변화를 깨닫자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언약궤기도를 드린다
- * 매일 방언기도를 드린다
- *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1. 왜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길 원했나?

가. 다윗은 언약궤가 블레셋 족속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안타까워 했습니다.

- 다윗은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 산지를 빼앗고서 그곳에 다윗성을 지었습니다.
- 언약궤가 여전히 블레셋 족속의 기랴여

아림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안타까워 했습니다. 기랴트여아림은 '바알레유다'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가나안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바알레유다'는 유다의 바알레라는 뜻인데 아마도 블레셋과 유다지파의 경계지역의 도시로 여겨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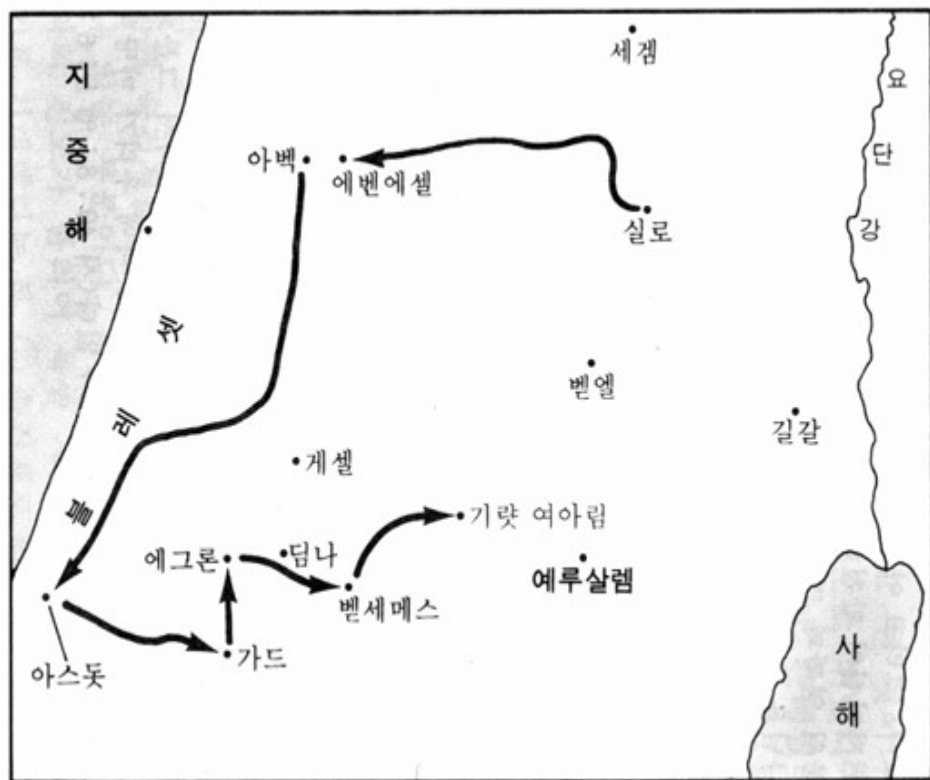
나. 다윗은 언약궤가 복의 근원임을 알았습니다.

- 오벰에돔의 집이 언약궤를 잘 간직함으로 범사에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서 다윗은 언약궤가 복의 근원임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삼하 6:11).
- 다윗은 옷사의 사건을 통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면 저주를 받게 되지만 언약궤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루게 된다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 다윗은 지난 수십년동안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주

[삼상 6:11] 여호와와 그의
와 및 금궤와 그들의 독
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
를 수레 위에 실으니

를 받은 블레셋 사람을 바라 보면서 언약궤는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물건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의 물건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 잃어버린 언약궤



가. 모세의 성막(주전 1445년) 출 40장

-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성막의 모형을 따라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언약궤를 만들어서 성막의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히 8:5).
- 모세의 성막과 함께 언약궤는 거의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나. 길갈(주전 1406 - 1400년) 수 4:19, 5:10

- 가나안 1차 정복 시기에 언약궤는 길갈에 안치되었습니다.

[수 4:19] 정월 십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치매

다. 실로(주전 1400- 1075년) 삼상 4장

- 여호수아는 가나안 1차 정복기간이 끝날 무렵에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하였습니다. 거의 300년 동안 언약궤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라. 에벤에셀 (주전 1075년, 7개월 사이) 삼상 4장

- 엘리가 대제사장인 시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 1차 아벡 전쟁에서 패하여 4천 군사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 에벤에셀 전쟁에서 패하여서 군사 3만이 죽고 언약궤를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삼상 4:10-11).

마. 아스돗 (주전 1075년, 7개월 사이) 삼상 5:1-8

- 블레셋 사람들이 에벤에셀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아 자신들의 성읍인 아스돗에 가져와 그곳 다곤 신당에 언약궤를 함께 안치해 놓았습니다.

[삼상 4:10]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루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려진 자가 삼만이었으며

[삼상 4:11]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삼상 5:1]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삼상 5:2]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삼상 5:3]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

-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깨뜨려 버리셨으며 아스돗에 독종이 임하게 함으로서 아스돗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드 성읍으로 보냈습니다.

바. 가드 (주전 1075년, 7개월 사이) 삼상 5:8-9

-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드 성읍으로 옮겼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 심한 독종으로 그곳 가드 성읍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 가드 성읍 사람들은 언약궤를 에그론 성읍으로 보냈습니다.

사. 에그론 (주전 1075년, 7개월 사이) 삼상 5:10 - 6:12

- 하나님께서 에그론 성읍 사람들에게 더욱 큰 환난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 에그론 성읍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사망과 환난을 당하였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종에 의해 거의 죽음 상태에

왔더니

[삼상 5:4]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께 앞에서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둥이만 남았더라 [삼상 5:5]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삼상 5:6] 여호와와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드러나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삼상 5:7]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삼상 5:8]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고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삼상 5:9]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와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시라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시니라

[삼상 5:10]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이르렀습니다.

-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로 인해 블레셋이 멸망할까를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단하고서 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이스라엘 지경인 벤세메스로 언약궤를 돌려 보냈습니다.
- 언약궤가 블레셋 세 성읍에 거한 기간은 7개월이었습니다(삼상 6:1).

아. 벤세메스 (주전 1075-1023년 사이) 삼상 6:13-21

-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언약궤를 벤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 위에 안치했습니다.
- 벤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드려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7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 벤세메스 주민들은 서둘러 기랏여아림으로 언약궤를 보냈습니다. 벤세메스에서 언약궤가 얼마동안 머물렀는지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삼상 5:11]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쳐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므로
[삼상 5:12]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충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삼상 6:1] 여호와와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는지 일곱 달이라

[삼상 6:19] 벤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와 궤를 들여다 본고로 그들을 치사(오만) 칠십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삼상 6:20] 벤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삼상 6:21] 사제들을 기랏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와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

알 수 없습니다.

- 언약궤가 블레셋의 아스돗에서부터 다윗성에 이르기까지 대략 75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블레셋 지경에서의 7개월과 기랴ת아림의 20년과 오벰에돔의 집에서의 3개월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5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어디에 안치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기랴ת아림 (주전 1023-1003년, 20년) 삼상 7:1-2

- 기랴ת아림 사람들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옮겨서 보관하였습니다.
- 기랴ת아림에 언약궤가 20년 동안 안치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을 떠나 홀로 안치된지 거의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삼상 7:1] 기랴ת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 놓고 그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삼상 7:2] 궤가 기랴ת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 년 동안은 오래 있었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사모하니라

- 하지만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차. 오벰에돔의 집 (주전 1003-1002년, 3개월) 삼하 6:10-12, 대상 13:13-14

- 다윗 왕이 백성 중 빼어난 무리 3만을 이끌고서 기랴트여아림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 올려고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를 때 언약궤를 메었던 소들이 땀으로 인해 옷사가 손을 들어 언약궤를 붙들자 하나님께서 지노하사 옷사를 치시고 죽게 하였습니다.
- 다윗 왕은 이를 크게 두려워하여 감히 그 날에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고서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안치하게 하였습니다.

카. 다윗성 (주전 1003-1002년) 대상

[삼하 6:10] 여호와와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 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삼하 6:11] 여호와와 궤가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에 석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벰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삼하 6:12] 훗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벰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벰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15:1-28

- 다윗이 여부스 족으로부터 점령한 시온 성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서 언약궤를 장막 안에 안치하였습니다.

타. 솔로몬 성전 (주전 959-958년) 왕상 6장, 대하 3:2

-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된 이 후에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은 7년이 소요되었습니다(왕상 6:38).
-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로 안치했습니다.
- 솔로몬 성전에 안치된 언약궤는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때까지(주전 586년) 거의 300년동안 예루살렘에 안치되었습니다.
-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왕상 6:38] 제십일년 불월 곧 팔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필역 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칠년이 었더라

3.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라

가.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행 15:16).

-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가장 중점적으로 원하신 것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언약궤에 있습니다. 언약궤가 존재해야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은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라고 명하셨습니다.

- '퇴락되었다'는 말은 '부서졌다', '파괴됐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언약궤가 부서지고 파괴되었다는 말씀입니다.
-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장막이 아닙니다. 겉으로 화려한 성전이 결코 '다윗의 장막'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행 15:16]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어떠한 장인이라 할지라도 부서진 언약궤를 다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언약궤를 만들기 원하시며 영적 장막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실까요?

-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고 하셨을까요?
-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사람을 언급하셨는데 '그 남은 사람들'과 '이방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일부 유대인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유대인입니다. 바알신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백성입니다.

'이방인'은 곧 우리들을 말합니다.

-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퇴락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명하신 이유는 바로 '주를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행 15:17).
-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신 이유는 다윗의 장막을 통해 '주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만 우리는 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할지라도 다윗의 장막이 되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주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닐지라도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행 15:17]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
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
려 함이라 하였으니

4. 언약궤를 향한 다윗의 열정

가.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다윗은 기랴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 3만명을 동원했습니다(삼하 6:1).
- 오벰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까지 언약궤를 옮겨왔을 때 여섯 걸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삼하 6:13).
- 여섯 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면 오벰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까지의 거리는 피의 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섯 걸음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으니 아마도 길바닥은 짐승의 피로 흥건했을 것입니다.
- 다윗이 짐승의 피 위에서 춤을 췄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 위에서 춤을 추야 합니다.

나. 다윗은 언약궤와 함께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 다윗은 언약궤와 함께 할 때 가장 기쁘

[삼하 6:1]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삼만을 다시 모으고

[삼하 6:13] 여호와와의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춤을 췄습니다(삼하 6:14).

- 다윗은 살이 보일 정도로 심하게 춤을 췄습니다(삼하 6:20). 다윗의 첫번째 아내였던 미갈은 그러한 다윗의 행위를 부끄러운 행위로 업신여겼습니다.
-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 참여했던 다윗은 '베 에봇'을 입었습니다(삼하 6:14). 베로 만든 에봇은 대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다윗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었던 것은 그만큼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 정성을 기울였다는 의미입니다.

다. 다윗의 장막에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 다윗은 언약궤가 '장막'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 다윗은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습니다(대상 16:40).
- 다윗의 장막에서는 춤과 경배가 주를

[삼하 6:14]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 에봇을 입었더라

[삼하 6:20]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삼하 6:14]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 에봇을 입었더라

[대상 16:40]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와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이렸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의식이 아닌 매우 색다른 예배형식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른 제사형식이 아니라 자유로운 말씀과 찬양과 악기연주와 춤으로 이뤄진 예배였습니다. 이런 예배는 영적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예배를 원하십니다(롬 12:1).

- 다윗의 장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없었습니다. 장막에 오는 사람은 곧바로 언약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아무리 열심히 성막에 나아갈지라도 언약궤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언약궤를 볼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하루밖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장막에는 항상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아버지께 곧장 나올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히 10:19-20).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 의육체니라

5. 언약궤가 귀중한 이유

가. 언약궤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입니다.

- 언약궤에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시작되었습니다(출 40:38).
-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과 함께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언약궤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항상 언약궤와 함께 했습니다(민 14:14).

[출 40:38] 낮에는 여호와와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민 14:14]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나. 언약궤는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 언약궤는 하나님 그 자체이므로 언약궤 스스로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 언약궤가 블레셋에 75년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언약궤 스스로 보호했습니다.

다. 언약궤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 언약궤와 함께 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

니다. 오벵에돔은 언약궤를 그의 집에 안치함으로써 복을 받았습니다(삼하 6:11).

-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와 함께 하였으므로 복을 받았습니다.

라. 언약궤는 악인을 멸하십니다.

-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로부터 언약궤를 뺏아 기뻐했지만 도리어 언약궤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 블레셋 족속이 에벤에셀 전투에서 빼앗은 언약궤를 아스돗에 가져와 다곤 신당에 언약궤를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깨부셨습니다(삼상 5:2-5). 또한 아스돗에 독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삼상 5:2-5).
- 가드 성읍에서도 심한 독종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삼상 6:8-9).
- 에그론 성읍에서도 심한 독종과 큰 환난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삼상 6:10).

[삼하 6:11] 여호와와 궤가 가드 사람 오벵에돔의 집에 석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벵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삼상 5:2]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삼상 5:3]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삼상 5:4]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통이만 남았더라

[삼상 5:5]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삼상 5:8]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삼상 5:9]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와 손이 심

마. 언약궤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 블레셋 족속들은 더 이상 언약궤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결국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결국 언약궤는 벤세메스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벤세메스는 제사장 성읍입니다. 하지만 벤세메스 사람들이 함부로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7천명이 사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삼하 6:19).
- 웃사는 함부로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삼하 6:6-7).
- 다윗의 첫째 아내였던 미갈은 언약궤로 인해 기뻐 춤을 췄던 다윗을 업신여겼으므로 이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 다윗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삼하

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
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
종이 나게 하신지라

[삼상 5:10]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
으로 보내니라 하나님
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
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
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
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
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삼상 6:19] 벤세메스 사
람들이 여호와와 그의
들여다 본고로 그들을
치사 (오만) 칠십 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륙
하셨으므로 백성이 애
곡하였더라

[삼하 6:6] 저희가 나곤
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
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
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의 궤를 붙들었더니

[삼하 6:7] 여호와 하나
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서 죽으니라

6:20-23).

- 누구든지 언약궤와 함께 하지 않거나, 언약궤를 무시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어 멸망 당하고 말 것입니다.

[삼하 6:20]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리시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삼하 6:21]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뒤흔들리라

[삼하 6:22]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 지라

[삼하 6:23]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3 장

/

언약궤기도의
비밀

제 3 장 언약궤기도의 비밀

훈련 목적

- * 언약궤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자
- * 언약궤기도를 직접 드려보자
- * 언약궤기도를 통해 나타난 증상을 느껴보자
- * 언약궤기도를 통해 삶속에 나타난 변화를 깨닫자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언약궤기도를 드린다
- * 매일 방언기도를 드린다
- *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1. 회막의 휘장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가. 성소 휘장은 한 조각 천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년에 하루동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대제사장은 휘장을 들쳐서 들어갔을 것입니다(히 9:7).

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

[히 9:7]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 일차씩 들어가되 피없이는 아니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마 27:50-51).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둘로 갈라지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 휘장이 둘로 갈라진 사실은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알려줍니다(히 10:19-20).

라. 예수께서 육신이 둘로 갈라진 사실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기인한 것입니다(창 15:17).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친히 갈라진 제물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진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체결 때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마 27: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타조고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 의육체니라

[창 15:17] 해가 저서 어물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2. 지성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입니다.

가.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강하게 체험하는 장소입니다(출 34:34-35, 히 4:16).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지만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는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나.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가 그곳 속죄소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하나님과 대면하듯 대화를 나눴습니다(민 12:8, 출 33:11).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대화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3. 지성소에는 오직 언약궤만이 놓여져 있다.

[출 34:34]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출 34: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 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히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민 12:8]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출 33:11]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할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가. 성소와는 달리 지성소에는 오직 언약궤만 놓여져 있습니다. 지성소가 중요한 것은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 40:20-21).

나. 언약궤는 사과박스 정도 크기에 불과한 작은 상자입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언약궤를 만지거나 취급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출 25:10-15).

다. 모세의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있었지만, 천국의 지성소에는 금향로도 함께 있습니다(히 9:3-5).

라. 이 땅에서의 금향로는 육신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어서 성소에 위치하고 있지만, 천국의 금향로가 지성소에 언약궤와 함께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체

[출 40:20]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출 40:21]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어 놓고 장을 드리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로 되니라

[출 25:10]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 고가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출 25:11]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출 25:12]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출 25:13]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출 25:14] 그 채를 궤 양면 고리에 꿰어서 궤를 메게 하며 [출 25:15] 채를 궤의 고리에 쥔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히 9:3]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히 9:4]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싹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향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히 9:5]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말이 말할 수 없노라

힘하기 위해 육신의 기도를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의 성도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의 기도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언약궤는 속죄소라는 뚜껑이 놓여져 있습니다.

가. 속죄소는 언약궤를 보호하는 것입니다(출 40:20-21). 누구든지 속죄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언약궤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속죄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속죄소를 지키고 있는 두 그룹을 통과해야 합니다.

나. 속죄소에는 피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 피는 곧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레 16:14-15). 속죄소의 위의 두 그룹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출 40:20]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출 40:21]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 놓고 장을 드리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로 되니라

[레 16:14]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번 뿌릴 것이며 [레 16:15]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찌니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속죄소에 뿌려져야만 속죄소가 열리고 언약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대제사장이 뿌렸던 피는 염소와 송아지 피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구약의 모든 피흘림의 제사는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히 9:11-12). 구약의 성막은 염소피와 송아지피로 거룩화되었지만 천국의 성막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 예수님의 피는 죽음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합니다(출 12:23, 엡 1:7, 요일 1:7).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자는 지은 모든 죄가 깨끗해짐을 얻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히 9:11]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출 12: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엡 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요일 1: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함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 그룹들이 속죄소와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 않고선 아무도 언약궤에 들어갈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출 25:20).

[출 25:20]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5.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가. 성소에는 정금등대가 있어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곳에서 의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에는 그 어떠한 빛을 내는 도구가 없습니다.

나. 회막은 네가지 덮개로 덮여져 있고 창문이 없었습니다(출 26:1-14). 첫째 덮개는 세마포 양장으로 짜진 천이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덮개는 염소털로 짠 천이 사용되었습니다. 셋째 덮개는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넷째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네가지 덮개로 성소가 덮혀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는 전혀 빛이

[출 26:1]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열 폭을 가늘게 곤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 놓아 만들찌니
[출 26:7] 그 성막을 덮는 막 곤 양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 한 폭을 만들찌며
[출 26:14]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덮개를 만들찌니라

없습니다.

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피뿌리는 의식을 집행했습니다(레 16:11-13).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어떠한 빛을 내는 도구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서 언약궤 양옆과 앞에 피를 뿌릴 수 있었던 것은 그 곳에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 그 빛은 바로 불기둥입니다. 불기둥은 성막과 항상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 불기둥은 언약궤와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6.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언약궤와 연결됩니다.

가. 언약궤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언약궤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합니다. 불

[레 16:11]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레 16:12]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안에 들어가서 [레 16:13]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케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찌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출 40:34]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출 40: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 함이었으며

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출 40:34-35, 왕상 8:10-11).

나.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에게 불처럼, 빛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지성소는 환하게 밝았던 것입니다(출 24:17).

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얼굴에 있게 될 것입니다(고후 4:6).

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항상 함께 합니다. 홍해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함께 하였습니다(출 14:19-20, 출 14:24, 출 40:38).

마. 오늘날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

[왕상 8:10]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와 전에 가득하매 [왕상 8: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이 여호와와 전에 가득함이었다라

[출 24:17] 산 위의 여호와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고후 4:6]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출 14:19]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출 14:20]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출 14:24]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출 40:38] 낮에는 여호

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구름과 영광의 불이 필요합니다 (고전 3:16).

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
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
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
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고전 3:16] 너희가 하나
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
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
하느뇨





4 장

/

언약궤기도는
준비

언약궤기도

(1단계) 방언기도를 통해 지성소로 들어옴
(방언은 천국을 여는 열쇠이다)

(2단계)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눔
(이때 음성과 환상이 열리게 된다)

(3단계) 속죄소 앞에서 보혈을 뿌린다
(보혈이 없이는 그룹을 통과할 수 없다)



(4단계)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5단계) 세가지 성물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한다
(세가지 성물은 천국의 모든 것이다)



(돌판)
언약(소망)을 상징



(썩난 지팡이)
믿음을 상징함



(만나 항아리)
사랑을 상징함

제 4 장 언약궤기도를 위한 준비

훈련 목적

- * 언약궤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자
- * 언약궤기도를 직접 드려보자
- * 언약궤기도를 통해 나타난 증상을 느껴보자
- * 언약궤기도를 통해 삶속에 나타난 변화를 깨닫자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언약궤기도를 드린다
- * 매일 방언기도를 드린다
- *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1. 골방을 찾으십시오.

가.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골방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마 6:6).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나. 예수님께서서는 평생을 홀로 기도하셨고, 언제나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예

수님의 기도를 본 받아야 합니다(막 1:35).

[막 1:35] 새벽 오하려 미
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
사 거기서 기도하시더
니

2. 성령님께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 십시오.

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의 방법
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눅 11:1).

[눅 11:1] 예수께서 한 곳
에서 기도하시고 마침
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
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
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
에게도 가르쳐 주옵소
서

나. 성막기도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 방언할 때에도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방언기도
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 예를 들면, "더 세게하라" "더 음을 높히
라" "이제 됐으니 기도를 정리하라" 등의
말씀을 하십니다.
- 이렇게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자연스럽게

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 성령님과 대화는 더 깊은 영의기도 단계에서도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됩니다.
- 이는 예수께서 늘 하나님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심으로 능력을 받으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하나님과의 대화는 곧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세상 음악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 성막기도를 할 때 세상적인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음악은 영적인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 성막기도반에서 시작할 때 찬양을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찬양도 함께 부르지 마십시오.

다. 개인적으로 성막기도를 드릴 때는 분향단에서 방언기도 후에 찬양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방언찬양으로 드리면 더욱 영이 활성화됩니다.

라. 방언찬양을 드리게 될 때 더 깊은 영의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찬양은 나의 의지적으로 드릴 수 있지만 영의찬양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천국의 소리를 듣고 따라 부르는 찬양입니다.

마. 지성소에서는 그 어떠한 음악소리를 틀어서는 안됩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이 온전히 우리의 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십시오.

가. 언약궤기도는 성막기도보다 더욱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기에 매우 적합한 기도입니다.

- 언약궤기도 중에서도 언약궤 안에서의 기도는 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합니다.
- 언약궤 안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질병이라도 언약궤에서의 기도를 통해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언약궤 안에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할 때 강력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나. 영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육적인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거나 손을 흔들지 마십시오.

- 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선 최대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 이는 언약궤기도는 영적으로 드러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 일단 방언기도와 방언찬양이 끝난 후부터는 조금도 몸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몸이 흔들려지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 어떠한 움직임도 스스로 해서는 안 됩니다.
- 언약궤기도를 드리다 보면 기름부음으로 인해 신체 특정한 부위가 가렵거나 저리거나 조이거나 뜨거워지거나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몸을 움직여선 안 되며 '내 몸이 왜 이러지? 이러다가 큰 일 나는 것 아니야?'라는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의심의 생각은 충만한 영적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5 장

/

언약궤기도
드리는 방법

제 5 장 언약궤기도 드리는 방법

훈련 목적

- * 언약궤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자
- * 언약궤기도를 직접 드려보자
- * 언약궤기도를 통해 나타난 증상을 느껴보자
- * 언약궤기도를 통해 삶속에 나타난 변화를 깨닫자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언약궤기도를 드린다
- * 매일 방언기도를 드린다
- *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1. 방언기도를 통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 방언은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방언을 통해 영이활성화됨으로써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게 만듭니다(고전 14:14).

[고전 14:14]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세게, 빠르게, 크게’ 하십시오. 그래야 영이 더욱 빨리 활성화가 됩니다.

다. 또한 방언할 때는 방언통변을 하지 마십시오. 무슨 기도일까 생각하지도 말고, 마음으로 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집중하십시오.

라. 방언으로 기도한 뒤에 영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고전 14:15).

[고전 14:15]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2. 지성소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가. 이렇듯 영의 찬양시간이 끝나면 우리의 영이 매우 강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육신의 소리를 내서는 안되며 육신의 그 어떠한 움직임도 있으면 방해받을

습니다.

나. 이렇게 고요한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깊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성령님은 "무엇이 보이느냐?"랄지 아니면 "무슨 소리를 듣느냐?"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영을 인도하십니다.

다. 성령님의 인도따라 환상을 보시고 본 환상을 가지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라. 그렇게 성령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당신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방문을 받게 되면 당신은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 속죄소에서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가. 주님과의 교제가 마치고 나면 언약궤 안으

로 들어가기 위해 속죄소 앞에 서게 됩니다.

나. 속죄소에는 주님의 보혈이 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 10:19-20).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다. 속죄소에는 두 그룹이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 언약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은 그룹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라. 그렇게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4.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능력을 받습니다.

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앞으로 인도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의 구름과 치유의 빛과 성령의 불로 나타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우리를 정결케 해주며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으로부터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내리쬡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빛은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며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마. 예수님의 치유의 빛으로 뜨거워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바. 이렇게 구름과 빛과 불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여러가지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5.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가. 언약궤에는 세가지 성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세가지 성물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나. 돌판은 언약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말씀을 지키시는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갖게 합니다(요 15:7).

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롬 4:17).

라.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

[요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롬 4:17]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빌 4:19]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눔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빌
4:19).

[빌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6 장

/

구름 빛 불
체험 실습

제 6 장 구름 빛 불 체험 실습

훈련 목적

- * 언약궤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자
- * 언약궤기도를 직접 드러보자
- * 언약궤기도를 통해 나타난 증상을 느껴보자
- * 언약궤기도를 통해 삶속에 나타난 변화를 깨닫자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언약궤기도를 드린다
- * 매일 방언기도를 드린다
- *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1. 영광의 구름 체험 실습

가. 실습을 위한 참조사항:

- 1) 영광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가운데 임하셨습니다(출 19: 16-18). 성막에는 구름기둥이 항상 함께 했습니다(출 40:25).

[출 19:16] 제삼일 아침에 우뢰와 번개와 뽁뽁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 19:17]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 2) 영광의 구름이 함께 할 때 악한 세력이 떠나갑니다. 영광의 구름은 악한 세력을 파쇄합니다. 또한 악한 세력이 침범치 못하게 막아줍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구름이 임할 때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 3) 영광의 구름은 마치 이불같기도 하고 구름같기도 합니다. 이불이 우리를 덮어 주듯이 그렇게 영광의 구름이 우리를 덮어줍니다. 또한 솜사탕 같기도 합니다. 솜사탕이 막대기에 달라붙어 커지듯이 그렇게 영광의 구름도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점점 그 크기가 커집니다.
- 4) 영광의 구름이 우리에게 임할 때 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게 됩니다. 영광의 구름이 우리를 에어싸거나 덮을 때 우리 몸에 기름부음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 이불이 우리를 덮을 때 압력을 느끼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몸에 압력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출 19:18]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웅기점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출 19:19]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출 40: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느껴집니다. 뇌, 얼굴, 가슴, 상체, 온 몸에 압력이 느껴집니다.

- 악한 세력이 빠져 나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몸 속에 내재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빠져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 몸이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영광의 구름에 의해 몸이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 몸 전체에 구름이 둘러 싸이게 되어 악한 세력이 침범치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영광의 구름이 솜사탕처럼 임할 때 악한 세력이 침범치 못하게 됩니다.

나. 실습 순서:

- 1) 대체적으로 방언찬양(영찬양)을 드린 후에 영광의 구름을 체험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자는 방언찬양을 부르게 하고 방언찬양이 끝날 때 자연스럽게 영광의 구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

도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순서가 아닐지라도 영광의 구름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대화를 마친 후에 영광의 구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보혈을 뿌린 후에 영광의 구름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참여자들이 영광의 구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 3) 가장 먼저 인도자가 영광의 구름을 느껴야 합니다.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것을 느낄 때 참여자들에게 "지금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 4)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은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냅니다. "지금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영광의 구름이 더욱 강하게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영광의 구름을 느꼈지만 선포를

하고 나면 더욱 선명하고 강한 영광의 구름을 볼 수 있습니다.

- 5) 인도자는 보이지고 느껴지는대로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참여자들도 인도자와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인도자가 보고 느끼는 것을 똑같이 체험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이럴 때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 6) 인도자는 더욱 세심한 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나타나는 증상들을 세세하게 설명하십시오. 하나도 빠지 않고 모든 증상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참여자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치료의 광선(빛) 체험 실습

가. 실습을 위한 참조사항:

- 1) 치료의 광선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입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요 1:4-5). 주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벧전 2:9).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말 4:2).
- 2) 치료의 광선이 임할 때 질병이 치유됩니다.
- 3) 치료의 광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 레이저빔처럼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아주 멀리서 내게 레이저빔같은 광선이 임하게 됩니다. 때로는 뇌, 때로는 얼굴, 때로는 가슴에 임합니다. 나에게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임하는 것입니다. 레이저빔이 임할 때 처음엔 아주 작은 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빛

[요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 1:5] 빛이 어둠에 비취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 4: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커진 빛은 마침내 불공으로 변화됩니다. 불공으로 변화된 빛은 우리 몸 속을 빙글빙글 돕니다. 이렇게 불공이 몸 속을 돌 때에 치유가 일어나며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불공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왼손에서 오른손 끝까지 돌게 됩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는 더욱 강하고 세차게 돕니다. 암이 있는 곳에는 한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제자리에서 세차게 돕니다. 이는 질병을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 뜨거운 불처럼 내려 앉습니다. 이럴 때는 머리 위에서 뜨거운 불이 임합니다. 이런 경우는 치유의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다 강력한 능력이 임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불이 임할 때 점차적으로 온 몸이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몸 속의 질병이 치유되며 능력도

함께 임하게 됩니다.

- 빛난 광선이 비추게 됩니다. 주로 얼굴에 광선이 비추게 됩니다. 이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얼굴에 숨어져 있는 악한 세력이 파쇄되어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의 얼굴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얼굴이 밝을 때 우리 몸도 밝아집니다.

나. 실습 순서:

- 1) 먼저 영광의 구름을 체험한 후에 치유의 광선을 체험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자는 영광의 구름을 먼저 체험케 인도하다가 자연스럽게 치유의 광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순서가 아닐지라도 치유의 광선은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대화를 마친 후에 치유의 광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보혈을 뿌린

후에 치유의 광선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참여자들이 치유의 광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 3) 가장 먼저 인도자가 치유의 광선을 느껴야 합니다. 치유의 광선이 임하는 것을 느낄 때 참여자들에게 "지금 치유의 광선이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 4)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은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냅니다. "지금 치유의 광선이 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치유의 광선이 더욱 강하게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치유의 광선을 느꼈지만 선포를 하고 나면 더욱 선명하고 강한 치유의 광선을 볼 수 있습니다.
- 5) 인도자는 보이지고 느껴지는대로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상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참여자들도 인도자와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인도자가 보고 느끼는 것을 똑같이 체험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이럴 때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 6) 인도자는 더욱 세심한 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나타나는 증상들을 세세하게 설명하십시오. 하나도 빠지 않고 모든 증상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참여자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성령의 불 체험 실습

가. 실습을 위한 참조사항:

- 1) 성령의 불은 모든 악한 것을 태우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은 불

로 모든 것을 소멸하십니다. 성령님은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행 2:2-3).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 명하셨습니다(데살 5:18).

- 2)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모든 악한 것이 태워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 3) 성령의 불은 세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 태웁니다: 성령의 불은 악한 세력을 태웁니다. 질병 세포를 태웁니다. 모든 상처를 태웁니다.
 - 빛을 냅니다: 성령의 불은 어둠을 빛으로 드러냅니다. 모든 어둠을 파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둠을 타고 생성된 모든 악한 세력이 파쇄됩니다.
 - 또 다른 불을 만듭니다: 성령의 불은 전이가 됩니다. 내가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불은 다른 사

[행 2: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행 2:3]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살전 5:19] 성령을 소멸치 말며

람에게 전이됩니다. 촛불이 다른
촛불을 빔내주듯이 그렇게 성령의
불은 전이가 됩니다.

나. 실습 순서:

- 1) 먼저 치료의 광선을 체험한 후에 성령의 불을 체험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치유의 광선과 성령의 불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광선이 성령의 불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인도자는 치료의 광선을 먼저 체험케 하다가 치료의 광선이 성령의 불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순서가 아닐지라도 성령의 불은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대화를 마친 후에 성령의 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보혈을 뿌린 후에 성령의 불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참여자들이 성령의 불을 체험할 수 있

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 3) 가장 먼저 인도자가 성령의 불을 느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느낄 때 참여자들에게 "지금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 4)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은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냅니다. "지금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성령의 불이 더욱 강하게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성령의 불을 느꼈지만 선포를 하고 나면 더욱 선명하고 강한 성령의 불을 볼 수 있습니다.
- 5) 치유의 광선이 점점 강해질 때 그 광선(빛)이 불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엔 그 불이 아주 작은 탁구공만한 불공이 되지만 점차 테니스공으로 변했다가 축구공처럼 큰 불공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불공이 만들어졌다면 그 불공을

아픈 곳에 가져갑니다. 불공이 아픈 곳을 치유하게 됩니다.

- 6) 불공이 온 몸을 돌게 합니다. 처음엔 십자가 모양으로 위 아래 좌 우로 돌게 한다(머리와 발 끝, 왼손과 오른손). 그러다가 불공이 온 몸을 돌게 합니다. 원을 그리면서 돌기도 하지만 몸 전체 구석구석을 돌게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빠른 속도로 빙빙 큰 원을 그리면서 돌게 됩니다. 이렇게 불공이 세계 빠르게 돌게 될 때 치유와 함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 7) 인도자는 보이지고 느껴지는대로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참여자들도 인도자와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인도자가 보고 느끼는 것을 똑같이 체험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이럴 때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 8) 인도자는 더욱 세심한 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나타나는 증상들을 세세하게 설명하십시오. 하나도 빠지 않고 모든 증상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참여자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6 장

/

세가지 성물 체험 실습

제 6 장 세가지 성물 체험 실습

훈련 목적

- * 언약궤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자
- * 언약궤기도를 직접 드려보자
- * 언약궤기도를 통해 나타난 증상을 느껴보자
- * 언약궤기도를 통해 삶속에 나타난 변화를 깨닫자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언약궤기도를 드린다
- * 매일 방언기도를 드린다
- *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1. 돌판 체험 실습

가. 실습을 위한 참조사항:

- 1)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은 하나님
의 언약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모세
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 적
힌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출
40:20).

[출 40:20] 그가 또 증거
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궤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 2)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서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할 때에 언약궤 안에는 돌판 뿐이었습니다(왕상 8:9).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는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다고 기록되었습니다(히 9:4).
- 3) 솔로몬 성전에 안치된 언약궤에는 돌판 뿐이었으나 하늘의 성전에는 세 가지 성물이 들어 있는 이유는 솔로몬 성전에는 썩난 지팡이와 만나 향아리는 크기가 언약궤보다 커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성물은 언약궤 옆에 안치되었습니다(민 17:10, 출 16:33). 하지만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과정에서 두 가지 성물도 자치를 감추고 만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 이 두 성물이 없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솔로몬 성전 완공 때에 이 두 성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천국의 언약궤는 세 가지 성물이 모두 들어 있

[왕상 8:9]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 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히9:4]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싹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사를 담은 금향아리와 아론의 썩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민 17:10]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 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출 16:33] 또 아론에게 이르되 향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출 16:34]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약
궤에서 세 가지 성물을 모두 체험할 수
있습니다.

- 4) 돌판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담겨져 있
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곧 약속이며 그것은 계약입니
다.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 우리와 계약
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을 지켜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은 이뤄집니다.
- 5) 돌판을 바라볼 때 돌판에 하나님의 말
씀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 6) 돌판은 소망을 뜻합니다. 천국에는 소
망이 존재합니다. 소망이 없는 천국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은 지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
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
며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 7)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두 가지는 <구름,빛,불>과 <세가지 성물>입니다. 대체적으로 <구름, 빛,불>의 체험을 먼저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세가지 성물>만 체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가지 성물>만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구름,빛,불>만 체험할 때에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체험의 내용이 다양하게 변화가 됩니다.
- 8) 먼저 언약궤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언약궤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 가지 성물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 9) 언약궤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순서는 보혈 뿌림입니다. 그것은 속죄소에서 이뤄집니다. 속죄소에서 보혈이 뿌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속죄소에서 뿌려지는 보혈은 성막문에서 뿌려지는 보혈과는 다릅니다. 성막문에서는 우리가 직접 믿음으로 보혈을 뿌리지만 속죄소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뿌려주십니다.

- 10) 이러한 보혈 뿌림이 있을 때 비로소 속죄소가 열리고 언약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도자는 참여자에게 속죄소에서 보혈 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보혈이 뿌려지는 것과 보혈을 뿌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혈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뿌려지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혈을 뿌리는 사건이 실제로 내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단순히 그런 순서가 있다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의 보혈이 내게 임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십자가에서 보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양동으로 보혈을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보혈이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불처럼 보혈보자기기 덮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혈을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니다. 보혈로 사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보혈이 뿌려 집니다. 이런 체험을 모든 참여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직접 인도자가 인도해야 합니다.

나. 실습 순서:

- 1) 이렇게 언약궤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돌판이 보입니다. 물론 꼭 돌판이 먼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먼저 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만나 항아리를 먼저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세 가지 성물 중 하나만 볼 때도 있습니다.
- 2) 돌판을 바라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돌판에 하나님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글을 읽으십시오. 그 글은 당신을 위한 글입니다. 그 글은 언약입니다. 반드시 이뤄집니다. 그 글을 계약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과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어떤 글이 보입니까? 그 글을 읽으십시오.

- 3) 인도자는 모든 참여자들이 돌판을 바라보게 해야 하며 돌판에 적혀진 글을 읽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까지만 하고 실습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어떤 글을 보았는지를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분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2. 썩난 지팡이 체험 실습

가. 실습을 위한 참조사항:

- 1)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썩난 지팡이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썩난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놓도록 하셨습니다(민 17:10).
- 2) 아론의 썩난 지팡이는 생명을 뜻합니다. 이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돌아났다는 것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

[민 17:10]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함을 뜻합니다(롬 4:17). 아브라함은 그의 몸이 죽은 나무와 같았지만 그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롬 4:18-22).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 생명을 만들어 가십니다.

- 3)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겼듯이 자녀가 없는 우리에게 자녀를 갖게 하십니다. 죽은 나무에서 싹이 돌아났듯이 이미 죽은 것만 같은 사업체가 다시금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자고 있는 자녀가 깨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술만 쳐먹는 남편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백수건달 남편이 변화되어 일꾼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돌짜같이 굳어진 시어머니의 마음이 백합꽃처럼 활짝 피는 역사가 있습니다.

[롬 4: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의 믿음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은 이시니라

[롬 4: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롬 4:19] 그가 백 세나 되었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

이 악하여지지 아니하고 [롬 4: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롬 4: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롬 4:22]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 4) 썩난 지팡이는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천국의 모든 것입니다. 천국의 산소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 5)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두 가지는 <구름,빛,불>과 <세가지 성물>입니다. 대체적으로 <구름, 빛,불>의 체험을 먼저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세가지 성물>만 체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가지 성물>만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구름,빛,불>만 체험할 때에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체험의 내용이 다양하게 변화가 됩니다.
- 6) 먼저 언약궤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언약궤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 가지 성물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 7) 언약궤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순서는 보혈 뿌림입니다. 그것은 속죄

소에서 이뤄집니다. 속죄소에서 보혈이 뿌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속죄소에서 뿌려지는 보혈은 성막문에서 뿌려지는 보혈과는 다릅니다. 성막문에서는 우리가 직접 믿음으로 보혈을 뿌리지만 속죄소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뿌려주십니다.

- 8) 이러한 보혈 뿌림이 있을 때 비로소 속죄소가 열리고 언약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도자는 참여자에게 속죄소에서의 보혈 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보혈이 뿌려지는 것과 보혈을 뿌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혈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뿌려지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혈을 뿌리는 사건이 실제로 내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단순히 그런 순서가 있다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의 보혈이 내게 임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

혈은 십자가에서 보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양동으로 보혈을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보혈이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불처럼 보혈보자기기 덮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혈을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혈로 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보혈이 뿌려 집니다. 이런 체험을 모든 참여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직접 인도자가 인도해야 합니다.

나. 실습 순서:

- 1) 이번에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싹난 지팡이를 바라보십시오. 인도자는 체험자로 하여금 싹난 지팡이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싹난 지팡이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 2) 참여자들이 모두 싹난 지팡이를 바라봤다고 짐작되었을 때 "싹난 지팡이에

서 여러분의 삶 속에 피어나는 꽃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꽃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입니다. 자녀가 될 수 있고 배우자가 될 수 있으며 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꽃으로 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여자들은 저마다의 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 3) 싹난 지팡이는 죽은 나무에서 싹이 돋아는 것입니다. 참여자의 삶에도 죽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 배우자, 재정, 건강, 행복 등 죽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죽어버린 우리의 것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싹난 지팡이'의 역사입니다.
- 4) 이렇게 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반드시 이뤄지고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도자는 "지금 보이는 것들은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대로 이뤄주실 것입니다. 믿음

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보여진 것이 그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취하십시오. 그러면 역사는 이뤄집니다"라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여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자녀가 꿈을 갖고 살아가는 멋진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술에 빠져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이 열심히 정을 위해 살아가는 멋진 남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병든 가족이 완전히 치유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가난에 찌는 모습이 부유함으로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 투성이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모습의 교회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꽃'입니다. 꽃은 피어나고 우리의 꿈은 실현될 것입니다.

- 5)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싹난 지팡이 단계를 마무리 해야 합니다. 모

두 눈을 뜨고서 자신이 취하였던 꽃에 대해서 얘기하면 훨씬 분위기가 고조 될 것입니다.

3. 만나 향아리 체험 실습

가. 실습을 위한 참조사항:

- 1)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 향아리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나 향아리를 언약궤 앞에 놓도록 지시하셨습니다(출 16:33).
- 2) 만나 향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0년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 3) 사랑은 천국의 요소입니다. 믿음과 소망처럼 사랑 역시 천국의 요소입니다. 천국에는 믿음, 소망, 사랑만 존재합니다.

[출 16:33] 또 아론에게 이르되 향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다(고전 13:13). 만일 당신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면 당신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 4)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두 가지는 <구름,빛,불>과 <세가지 성물>입니다. 대체적으로 <구름, 빛,불>의 체험을 먼저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세가지 성물>만 체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가지 성물>만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구름,빛,불>만 체험할 때에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체험의 내용이 다양하게 변화가 됩니다.
- 5) 먼저 언약궤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언약궤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 가지 성물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 6) 언약궤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순서는 보혈 뿌림입니다. 그것은 속죄소에서 이뤄집니다. 속죄소에서 보혈이 뿌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속죄소에서 뿌려지는 보혈은 성막문에서 뿌려

지는 보혈과는 다릅니다. 성막문에서는 우리가 직접 믿음으로 보혈을 뿌리지만 속죄소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뿌려주십니다.

- 7) 이러한 보혈 뿌림이 있을 때 비로소 속죄소가 열리고 언약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도자는 참여자에게 속죄소에서 보혈 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보혈이 뿌려지는 것과 보혈을 뿌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혈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뿌려지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혈을 뿌리는 사건이 실제로 내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단순히 그런 순서가 있다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주님의 보혈이 내게 임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십자가에서 보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양동으로 보혈을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보혈이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불처럼 보혈보자기기 덮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혈을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혈로 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보혈이 뿌려 집니다. 이런 체험을 모든 참여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직접 인도자가 인도해야 합니다.

나. 실습 순서:

- 1) 만나 항아리를 보십시오. 그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인도자는 체험자로 하여금 항아리를 드러다 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체험자들은 항아리 속에서 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 2) "항아리 속에 들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라고 말하십시오.
- 3) 항아리 속에 있는 것은 '상상'이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상상으로 지어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몰라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항아리에 뭐가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 4)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만나 항아리 단계를 마무리 해야 합니다. 모두 눈을 뜨고서 자신이 받았던 선물을 얘기하면 훨씬 분위기가 고조될 것입니다.

언약궤기도반 교재

초판발행 2015. 2. 26
지 은 이 데이빗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등 록 제C-2013-018795호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더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국제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의 신학교로서 강도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국제신학교는 1년 6학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 국제신학교는 수시입학이 가능하며 한부분 사역자일 경우 학비 면제를 받습니다.

● 접수: www.wslseminary.com

● 이메일: inourlove@gmail.com

● 문의: 손에스더목사(010-3909-8844)

● 유튜브채널: www.RevivalForChurch.com